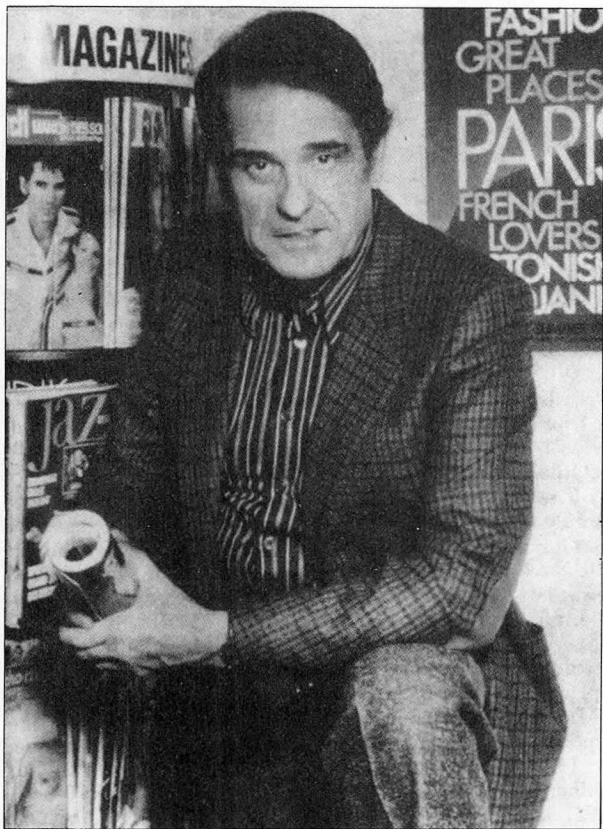


# 술링이는 뉴욕의 잡지출판계

## 프랑스의 출판재벌 필리파치, 미국 출판사 계속 사들여



감각적인 안목의 출판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다니엘 필리파치

올봄 뉴욕의 출판가는 프랑스의 신흥출판재벌 다니엘 필리파치의 등장으로 한창 시끄럽다.

지난 4월초, 미국의 소비자전문 잡지 출판사인 다이아몬드스 커뮤니케이션(Diamonds Communication Inc.)사를 거금 7억1천2백만 달러에 사들인 그는 과연 누구인가?

다니엘 필리파치는 국내독자들 과도 친숙한 「파리 마치(Paris Match)」와 「엘르(Elle)」 등 각종 잡지들을 발행하고 있는 필리파치 그룹의 회장이다. 날카로운 출판감각과 뛰어난 사업수단으로 프랑스 최대의 잡지재벌이 된 그는, 3년 전 미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마침 불어닥친 달러가치의 하락세를 틈타 미국의 유수한 출판사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다이아몬드스사에 이어 교육학전문도서 출판사인 그롤리어(Grolier Inc.)사도 4억4천9백만 달러에 사들인 필리파치는, 이

제 총 10개국어로 발간되는 74종의 잡지를 거느린 명실상부 세계최대의 출판재벌로 뛰어오르게 됐다.

여기에서 필리파치의 개인적인 면모를 살펴보자. 한 출판사 편집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디스크 자기로 활동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사진작가로 변신을 꾀해 수사전문잡지인 「레이다(Radar)」에서 주로 흥미거리의 성범죄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패션전문지인 「엘르」와 시사종합지 「파리 마치」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는 훗날 그가 두 잡지를 사들이는 계기가 됐다.

1950년대 초반부터 잡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는, 1963년 미국의 「플레이보이」誌를 본뜬 半도색잡지 「뤼(Lui)」를 창간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휴 헤프너로도 불리는 그는,

1976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파리 마치」를 사들여 2년만에 3배의 부수증가를 이룩함으로써 도색잡지 출판인이라는 종래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프랑스 언론계의 실력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5년, 그는 미국에서 영어판 「엘르」(판매부수 백만부 이상)와 영화전문지 「프리미에르」(Première)를 발행하게 된다. 이 중 특히 「엘르」는 미국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낸시 레이건은 “자유의 여신상 이래 프랑스가 미국에 보낸 최대의 선물”이라고 호평하기까지 했다.

세계최대의 잡지재벌이자 가장 혁신적인 감각의 출판인으로 꼽히고 있는 필리파치는, 경쟁회사인 타임사의 잡지발행인 크리스토퍼 마이어의 지적처럼 ‘스타일과 그래픽분야에 있어 감각적인 안목을 지닌 편집자이자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대중의 취향 및 사회적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그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인 그에게도 사업상의 쓰라린 실패는 있었다. 1977년에는 「룩(Look)」誌의 부활로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려던 계획이 완전실패로 돌아가 천2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자초했고, 프랑스 국내에서 「오메가(Omega)」라는 제호의 일간지를 창간하려던 노력도 완전 물거품이 되고만 일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지난 해에는 프랑스 우익단체들의 반포르노 캠페인에 몰려, 도색출판업자라는 집중공격을 당하기도 했다(그러나 현재 필리파치 그룹의 포르노계열 잡지들이 울리고 있는 수입은 그룹 총 수입액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프랑스 정부는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필리파치 그룹이야말로 국가적인 자산이며 프랑스의 이

미지를 세계에 선양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니엘 필리파치는 「뉴스위크」 최근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TV의 전성기는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TV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말하며, 1990년대야말로 잡지의 황금기가 될 것임을 장담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잡지의 미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넓은 지식에 도전하여 그들로하여금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회사의 잡지들을 사들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간하는데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척자적인 패기에 넘쳐 있다. 4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戰後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적으로 어필할 새로운 출판물을 구상 중이라는 그의 포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한 출판인의 노력과 정열을 엿볼 수 있다.

## 八旬에 접어든 아이작 싱거 신작 단편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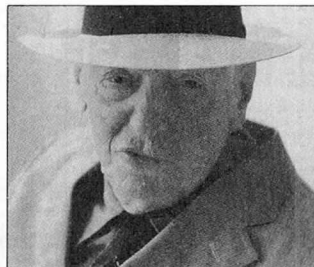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아이작 싱거(84)가 팔순을 넘긴 나이에 신작 단편집을 내놨다. 싱거는 지난 82년과 85년에도 단편집을 발표해 평단의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판매부수면에서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문단에서는 이러한 싱거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놓고, “자연의 힘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멈출 수 없듯이, 그의 창작열 역시 쉴 줄을 모른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아이작 싱거의 이번 단편집 「메두셀라의 죽음」(The Death of Methuselah and Other Stories, 파라 스트라우스 앤드 지루)에는 표제작을 비롯해 20여편의 신작들이 묶여 있다.

「바보 짐펠」(Gimpel the Fool and Other Stories, 57년)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싱거의 모든 작품들 속에는, 1935년 그가 나치의 박

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젊은 날들을 보냈던 폴란드의 유대인사회가 짙게 영향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아이작 싱거는 43년 정식 시민권을 얻어 아직까지 미국에 정착하고 있으면서도 이디쉬語로만 작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완성된 작품은 그가 직접 英譯하거나 다른 작가들을 통해 번역되어 발표된다고.

이번에 발표된 단편집에 실린 작품들은 소재나 전개면에 있어서 싱거의 작품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빌론에서 온 유대인」에서는 한 떠돌이 마법사의 수난과 죽음, 「하우스 프렌드」에서는 노년의 나이에도



아이작 싱거

유부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 노인의 행각을 한 젊은이의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밀수업자」에서는 뉴욕시의 인기작가와 그를 찾아온 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싱거의 작품들은 간결명확한 정제된 언어의 사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등의 말이 유달리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라 면 특징.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 역시 불필요한 묘사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있어,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미사여구들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老작가의 고집과 조바심을 엿보게 한다고 평론가들은 지적한다.

“70세가 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나의 두뇌는 육체가 얼마나 노쇠해져버렸는지 모르고 있는 것만 같다. 아직도 나에게는 20대 때와 같은 젊음과 바보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한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아이작 싱거는 예술세계와 삶을 향한 씩씩한 사랑과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토로하고 있다.

— 오애리 기자